비염·코막힘 개선 '기능적 코성형' 미용·기능 동시에 고려해 결정해야

건강 바로 알기
기능적 코성형

최 지 윤
조선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코 내부 가장 좁은 부위 '비밸브' 가습·온도조절·후각작용 등 도와 부위 좁아져 조절 기능 나빠지면 '비밸브협착증' 전문의 상담 후 수술

조선대병원 최지윤 교수가 코막힘으로 일상의 불편을 호소하는 환자를 진찰하고 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성형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으며, 그중 눈성형은 기본이 돼 버린 지 오래이다.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어 요즘은 코성형도 많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만, 대다수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비용과 혜택이다 보니 병원의 시스템이나 수술방법, 의료진의 실력이나 경험은 뒷전이 되기 쉽다.

특히 요즘처럼 방학을 맞아 수험생 이벤트가 많은 경우 성형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의 성형이 많이 이루어진다.

이벤트나 혜택에 쉽게 결정하고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재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단순 상담이나 친구나 지인을 통해 덜컥 수술을 결정하게 되면 때론 골치아픈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니 곰곰이 생각해보고, 나에게 맞는 코성형을 결정해야 한다.

코성형은 크게 미용코 성형, 재건코 성형, 기능적 코성형으로 나눌 수 있다.

'기능적 코성형술'이란 단순 미용적 목적뿐 아니라 코의 기능적인 요소까지 고려한 수술이다. 코의 외비변형에 의해 코가 막히고 호흡곤란을 초래하는 경우, 외비교정을 통해 외비형태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코의 호흡 기능을 복원하는 코성형술을 통틀어 말하는데, 기존에는 비밸브 협착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법이 없어 진단 및 치료에 어려움이 있었다.

최지윤 교수는 비밸브 협착 분류 가이드를 통해 세계최초로 기능적 코성형술 및 비밸브협착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환자에게 치료적 도움을 주고 최적의 수술적 결과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비밸브란 코 내부 가장 좁은 부위로 호흡을 조절해 가습, 온도 조절, 후각 작용 등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돕는 기관으로, 이 비밸브 부위가 좁아져 조절기능이 나빠지면 비염이나 코막힘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질환을 비밸브협착증이라고 한다.

비밸브는 조금만 좁아져도 코가 막히게 되는데 코 내부를 지지하는 비중격 연골이 휘어지면서 호흡 기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비중격만곡증을 동반하기도 한다. 따라서 평소 코막힘이 잦은 사람은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상담 후에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현재 조선대병원 이비인후과는 다년간의 경험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능적 코성형 수술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최 교수는 국제안면성형-재건전문의, 국제미용성형전문의로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상임이사, 대한비과학회 상임이사, 대한안면성형재건학회 상임이사 및 한국미용성형의학회 회장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대한이비인후과학회의 코성형 및 안면성형재건분야에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미국안면성형학회지를 포함한 국내·외 다양한 학술지에 다수의 우수 논문을 발표하고, 코성형에 필요한 '비중격 연장기'와 '가슴 연골 채취기'를 특허 등록하는 등 독창적인 수술 및 수술기구를 개발하는 연구 업적도 인정을 받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기독병원 14대 이승욱 병원장

"진료와 경영이 곧 선교가 되는 병원 세계 최고 기독교선교 병원으로 도약"

소화기내과 내시경 통한 ERCP 결핵호흡기질환 치료 역량 강화

"경영이 곧 선교가 되는 병원, 세계 최고의 기독교 선교 병원으로 도약하겠습니다."

광주기독병원 제 14대 병원장으로 취임한 이승욱〈사진〉 병원장은 취임 인터뷰에서 "국내외 선교센터들과 교회를 연결하는 허브병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환자진료와 더불어 선교를 지향하는 선교 병원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욱 병원장은 전남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지난 2001년 광주기독병원 순환기내과 전문의로 기독병원과 첫 인연을 맺었다.

이승욱 병원장은 광주기독병원 순환기내과 진료과장, 응급센터장, 수련부장, 의과학연구소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맡으며, 임상경험과 경영능력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병원장은 지난 2004년 하버드대학에서 연수를 마치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미국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치료분야 개척에 박차를 가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광주지역 세 번째 심혈관센터를 개설하고, 광주기독병원 내 관상동맥조영술을 최초로 시작했다. 특히 심혈관센터는 관상동맥 조영술 및 중재술 등을 시행해 응급 시술이 필요한 수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등 지역 의료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병원장은 학계 및 다양한 대외 활동을 활발히 펼치면서 2017년부터 심혈관합병증연구회 정보 및 기획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또 2020년 대한중재시술학회 중소병원발전위원회 위원장, 2022년 호남순환기학회 학회장, 2024년 광주전남 내과 지회장 등을 맡아 현재까지 역임하고 있다.

이 병원장은 "광주기독병원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수많은 한센병, 결핵 환자들을 가족처럼 진료하며 소외된 이웃과 환자들을 살리겠다는 사명으로 세운 병원"이라며 "지금의 광주기독병원이 있기까지 한국을 사랑하며 한국이름으로 살아간 외국인 선교사님들과 역대 병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헌신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기독병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복안도 제시했다. 그는 "갈수록 경쟁이 심화되고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대응하고 새롭게 주어진 시대적 선교적 소망을 다하고자 한다"면서 "우리 병원이 자랑하는 소화기내과 내시경을 통한 역행성담도췌장조영술(ERCP)과 세계 최고의 결핵호흡기질환 치료 진료 역량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병원장은 이어 "소화기내과의 내시경을 통한 역행성 담도췌장 조영술, 결핵 및 호흡기질환 진료 등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해 온 우리병원의 진료 역량을 더 발전시키겠다"며 "특히 심장, 뇌, 척추, 비뇨기 질환, 암 치료 등 전문적 치료를 위해 의료진 보강과 전문센터 개설을 통해 중증질환 환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출산 여성 6명 중 1명 '산후우울증'

국내에서 출산한 여성 6명 중 1명꼴로 산후우울증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분당차병원 산부인과 류현미 교수와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조희영 교수 연구팀은 국내 병원 두 곳의 임산부 2512명을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4주까지 추적 관찰해 분석한 결과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

연구는 이들에게 기본적인 정보와 우울 증상 유무, 스트레스 요인, 가족 관계, 삶의 질, 결혼에 대한 만족도 등을 두루 설문한 뒤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산후우울증 진단은 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에든버러 산후우울증 척도(Edinburgh Postnatal Depression Scale)를 활용했다.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우울증 위험 요인을 알아보고자 애초 우울증 병력이 있는 여성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연구 결과 전체의 16.32%인 410명에서 산후우울증이 나타났다. 연구팀은 나머지를 대조군으로 설정해 산후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시 살폈다.

전반적인 스트레스 지수는 임신 기간부터 출산 후까지 산후우울증 그룹이 더 높았는데 실질적인 문제로는 보육과 주거의 어려움이 꼽혔다.

출산 후 보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비율은 산후우울증 그룹에선 70.49%에 달했으나, 대조군에서는 46.43%에 그쳤다. 주거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다는 비율도 산후우울증 그룹에선 14.88%, 대조군에선 5.19%로 큰 차이가 났다.

결혼생활의 만족도는 산후우울증이 없는 대조군에서 높았다. 출산 후 느끼는 결혼생활 만족도는 0~6점으로 매겼는데 이때 중간값인 '행복하다'는 3점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은 산후우울증 그룹에서 81.22%, 대조군에서 93.24%였다. /연합뉴스

성장호르몬 주사제 부작용 호소 사례 증가

'키 크는 주사'로 불리는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맞고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사례가 매년 크게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성장 호르몬 주사제는 의학적으로 성장에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 처방하는 약으로, 미용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장호르몬 주사 처방 건수는 2022년 19만1건으로, 2018년(5만5075건)의 3.5배였다.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처방된 성장 호르몬 주사제는 69만5503건이었다.

성장 호르몬 주사제 처방이 늘면서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도 증가했다.

신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20건이던 보고 건수는 2022년 1604건으로 5배로 늘었다. 2018년부터 2023년 9월까지 보고된 이상 사례는 총 5368건이다.

/연합뉴스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헌사가 아닐까."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 신춘문예, 미션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촛불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창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창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창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지 은 이 | 조선의
펴 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